

면담의 환경적 특성 및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 연 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이 승 진¹⁾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본 연구는 아동의 오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를 달리하여 그와 같은 면담의 구조적 특성이 아동의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수도권에 거주중인 만 4-12세 아동 128명을 라포 형성의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 특성에 따라 무선 할당하였다. 아동의 연령, 개방형 또는 직접형의 라포 형성의 형태, 그리고 지지적, 중립적, 비지지적인 면담자의 태도를 각각 조작하여 이에 따른 아동 기억 회상 보고의 정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어린 아동일수록 면담자의 지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학 아동에게 기대되지 못했던 개방형 라포 형성의 효과도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암시적 정보에 대한 아동의 저항력이 면담자의 태도와 면담 전 라포 형성의 형태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이 증명됨과 동시에 아동의 개인차 특성에 따라라도 상이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 조사 맥락에서 피해 아동의 개인차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면담 구성과 면담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라포 형성 형태, 면담자의 지지, 의도적 통제, 아동 기억의 정확성, 아동 진술

* 이 연구는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 sjmagiclife@gmail.com)

I. 서론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을 평가할 때, 특히 아동의 회상 보고가 성적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오정보에 대한 아동의 저항 수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나아가 증명력을 획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성적 학대는 대개 사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확실한 신체적 혹은 물질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이와 관련된 사건의 해결은 주로 아동의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이다. 따라서 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과 개별아동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김태경, 이영호, 2010).

그러나 아동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고 실험실에서의 과학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과 기억에 관한 문제들은 정확한 해결책을 갖지 못한 채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조은경, 2004). 실제 사안을 살펴보자면, 강제추행사건을 판시한 2014고합261에서는 진술당시 8세에 불과한 아동의 진술일지라도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모순 없고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을 한 피해아동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아울러 살인 및 살인미수 그리고 현주건조물방화치상사건을 판시한 98고합1266에서도 앞선 사례의 아동과 마찬가지로의 사유로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 증

언 당시 만 6세 11개월에 불과한 유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였다. 반면 강제추행사건을 판시하였던 2005노1621에서는 아동의 애매한 진술과 모호한 기억 그리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선고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진술은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아동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듯 아동 진술의 결정적 역할에 비추어, 최근 수 십 년 동안 아동이 신뢰롭고 정확한 진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아동은 암시적 정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Goodman & Melinder, 2007)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면담자가 바람직한 질문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 어린 아동도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이든 아동만큼 혹은 성인만큼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었다(Krähenbühl & Blades, 2006). 문제는, 아동의 경우 종종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것보다 적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면담자가 구체적인 네/아니오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 혹은 암시적 정보가 다분히 포함될 수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Orbach & Lamb, 2000). 그러나 아동에게 이러한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신뢰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Geddie, Fradin, & Beer, 2000) 진술 내용의 정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진술조사 맥락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연구들은 아동이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에 잘 저항할 수 있는 면담의 상황적 요인들과 아동의 개인차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이승진, 광금주, 2014). 특히, 사회적 혹은 상황적 요소가 아동의 목격자 진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법의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사회적/상황적 요소의 효과는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인지적 요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Davis & Bottoms, 2002; Quas & Lench, 2007). 예를 들어 Roebels, Schwarz와 Neumann(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10세 아동들의 사건 회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적 영향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부 아동들은 같이 면담을 받는 척하는 성인 실험자가 있는 상태에서 면담을 받았으며, 다른 아동들은 혼자서 면담을 받았다. 그 결과 성인 실험자와 같이 있었던 아동들은 사회적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성인의 답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Greenstock과 Pipe(1997)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해 면담을 받은 5-10세 아동들은 혼자서 면담을 받은 아동들보다 유도성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hompson, Clark-Stewart와 Lepore(1997)의 연구에 따르면 면담자의 감정적 어조는 아동의 회상에 영향을 주었다. 5-6세 아동들은 비난하는 어조의 면담자로부터 면담을 받을 경우, 중립적 어조의 면담자로부터 면담을 받을 때보다 면담자의 암시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들로 미루어 볼 때, 아동의 기억과 암시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혹은 상황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Quas, Qin, Schaaf, & Goodman, 199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동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적 요인으로 면담자의 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범죄 사건의 목격자나 피해자로서 면담을 받는 것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특히 아동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Carter, Bottoms와 Levine(1996)은 면담에 의한 불안감이 목격자의 증언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Quas & Lench, 2007). 그러므로 특히 진술 조사 맥락에서 면담자는 진술자인 아동의 걱정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이 진술을 할 때 최적의 인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Sondhi & Gupta, 2005). Roberts, Lamb과 Sternberg(2004)는 면담자가 제공하는 지지가 아동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불안감을 완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도움 혹은 격려의 형태로 정의되며 이는 상대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도하고 불안감을 완화한다(Burleson, Albrecht, Goldsmith, & Sarason, 1994). 사회적으로 지지적인 분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웃음, 눈맞춤, 개방적인 자세, 언어적 격려, 원활한 라포 형성 등은 모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Engelberg & Christianson, 2002). 반면 잘 웃지 않고 면담 대상과 눈을 잘 맞추지 않으며 거리감을 두는 비지지적인 면담자는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merigogna, Ost, Akehurst, & Fluck, 2008; Davis & Bottoms, 2002). 이와 관련하여 Goodman, Bottoms, Schwartz-Kenney와 Rudy(1991)의 연구에서는 4-7세 아동들과

면역 주사를 맞은 경험에 대한 면담을 하면서 지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면담자가 참여한 경우와 비지지적인 행동을 보이는 면담자가 참여한 경우로 나누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지지적인 면담자는 자주 웃었으며 아동을 칭찬하고 간식을 제공하였다. 반면 비지지적 면담자는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잘 웃지 않고 아동을 칭찬하지도 않았으며 간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연구 결과, 지지적인 면담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아동들은 비지지적인 면담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아동들에 비하여 자유 회상 과제에서 적은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유도성 질문 혹은 학대 관련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Carter와 동료들(1996)의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는 면담자와 비지지적인 태도를 취하는 면담자로 나누어서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지지적인 태도의 면담자는 웃음을 보이고 아동과 자주 눈을 맞추고 대화를 격려하면서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려고 노력한 반면, 비지지적인 면담자는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잘 웃지 않고 눈도 잘 맞추지 않았다. 그 결과 지지적인 면담자에게 질문을 받은 5-7세 아동들은 유도성 질문에 보다 잘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면담자의 태도는 암시적 정보에 대한 아동의 저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면담자의 지지적인 태도만큼이나 진술 조사 맥락에서 면담자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 역시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승진, 광금주, 2014). 가능한 정확한

아동의 진술을 요구하는 면담에서 면담자들은 아동에게 실질적 주제, 즉 범죄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도록 권고 받는다(Fisher & Geiselman, 1992; Home Office, 2002; Lamb, Sternberg, & Esplin,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수의 경험적 연구들만이 라포 형성의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였을 뿐 대부분의 진술 조사 면담들은 라포 형성에 피상적인 노력만을 기울인 경향이 있다(Stockdale, 1996; Warren, Woodall, Hunt, & Perry, 1996).

진술 조사 맥락에서 라포 형성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첫째, 일부 아동들은 당황스럽거나 성적인 개인적 경험에 대하여 서술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Saywitz, Goodman, Nicholas, & Moan, 1991). 이러한 경우 라포는 아동의 불안과 불편을 감소시키고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를 가능하게 한다(Siegmán & Reynolds, 1984). 둘째, 아동은 권위적인 인물이 질문할 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쉽게 암시를 받는 경향이 있다(Tobey & Goodman, 1992). 하지만 충분한 라포는 아동의 이해력을 높이고 진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 암시를 제공하는 경우 암시에 높은 저항력을 보인다(Goodman et al., 1991). 셋째, 라포 형성은 면담자들이 실질적 주제를 다루기 전에 아동의 언어 능력, 인지 기능, 정서 상태 등을 평가하도록 돕는다(Poole & Lamb, 1998). 넷째, 라포 형성 단계는 아동에게 면담의 목적과 기본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면담의 정보 가치를 높인다(Orbach & Lamb, 2000).

라포 형성의 이점에 관한 이와 같은 일관된 동의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동의는 아직도 상당부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Sternberg 등(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범죄 피해 아동과 라포를 형성할 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직접적이고 강제 선택적인(focused)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방형 질문 조건의 아동들은 직접적 질문 조건의 아동들보다 2.5배 정도 많은 사건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개방형 질문 조건의 아동들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학대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포 형성의 유형이 아동 진술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개방형 라포 형성이 직접적 라포 형성보다 더 길고,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을 촉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Fisher와 Geiselman(1992)에 따르면, 라포 형성은 면담의 통제권을 면담자로부터 아동 진술자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의 기억회상이론에 기초하여, 목격자 및 피해자의 정보 회상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면담기법(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엽, 2004)을 바탕으로 하는 면담자들은 아동을 방해하지 않고 아동이 충분히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아동 위주로 면담을 시행하도록 훈련받는다. 또한 개방형 질문은 아동이 어떤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지 선택하게 하며, 아동이 이미 제공한 정보에 또

다른 정보를 더함으로써 진술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즉, 통제권 이동은 아동에게 면담자가 아닌 아동 자신이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직접적 질문은 아동의 이전 진술과 관련 없는, 면담자가 선택한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통제권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 사용을 사용하면 아동에게 전문가 의식을 심어주고, 직접적 질문을 사용할 때보다 길고 완전하며 정확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을 전문가라고 인지한 아동은 면담자가 제시하는 부정확한 암시에 저항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방형 라포 형성은 올바른 회상 기술을 사용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Roberts & Blades, 1999). 그러므로 라포 형성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을 연습하는 것은 후에 대상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면담을 진행할 때도 아동이 회상 기술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라포 형성 단계에서 정보 회상을 연습한 아동들은 재인 진술에 의지한 아동들보다 정확한 진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자의 태도나 라포 형성 형태와 같은 면담의 상황적 특성 이외에도 아동 기억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아동 개인의 다양성이다. 같은 연령의 아동일지라도 어느 아동은 잘못된 암시에 높은 저항을 보이는 반면, 어떤 아동은 오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차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예: Gudjonsson, 2003). 아동 기억의 정확성을 예측

하는 개인차 특징들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양보(yield)로서, 유도성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두 번째는 이동(shift)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에 사회적으로 민감하여 면담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답변을 변경하는 경향을 의미한다(Gudjonsson, 1984, 1987). 이러한 차이는 성인에게서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서도 나타난다(Melinder, Scullin, Gunnerod, & Nyborg, 2005; Kanaya, Ceci, & Scullin, 2002).

하지만 아동 기억의 정확성은 수많은 개인차 요인과 상관이 있다. Quas와 Schaaf(2002)의 경우 충동성과 아동 기억의 정확성을 연결시켰다. 충동성은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Schachar & Logan, 1990)와 관련이 있으며, 연구자들은 아동의 억제가 클수록 암시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Schaaf, Goodman, & Alexander, 1999). 한편 Giles, Gopnik과 Heyman(2002)은 출처 감찰과 아동 기억의 정확성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제 3의 변인, 특히 억제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억제와 관련된 능력은 출처 감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Melinder, Endestad, & Magnussen, 2006). Melinder 등(2006)은 억제가 암시성 질문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인 반면 출처 감찰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면담을 하는 상황적 변인과 면담자의 개별 특성을 포함하는 면담의 환경적 특성은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곽금주, 이승진, 2006). 구체적으로 면담의 환경적 특성은

면담자의 편견에 의존한 발언, 면담자의 권위, 면담 질문의 전반적 구성이나 면담하는 태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강제 선택형 질문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면담자의 편견은 면담을 진행하는 태도나 어조, 본격적인 수사 면담 전 아동을 준비시키는 과정(예: “그 사건은 너에게 매우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매우 거북하고 부담스럽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 나쁜 사람이 너에게 했던 몹쓸 짓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야”) 등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위가 있는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저항하는 행위를 조심스럽거나 불편하다고 느껴 면담자의 편견에 의존한 믿음을 좇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의 거짓 진술은 비단 면담자의 강제 선택형 질문에 대한 대답뿐만이 아니라 자발적 보고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발적인 보고 즉 자유 회상 진술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아동 보고에서 나타나는 부정확성은 사법적 판단에 특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Bruck & Ceci, 2004).

면담자의 개방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 응답에서 나타나는 부정확성에 관한 예로, 허구적 사건에 대한 아동 면담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Ceci와 동료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Bruck, Ceci, & Hembrooke, 2002; Ceci, Huffman, Smith, & Loftus, 1994). Ceci 연구진의 실험에서는 면담 시작 전 면담자는 아동과 게임을 하거나 하나

의 거짓 사건을 ‘상상’해보도록 요구하였다. 또는 면담자가 아동에게 이미 부모님 혹은 주변 친구들이 해당 사건의 발생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다고 거짓 전달을 하였다. 이후 아동에게 그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을 모두 서술해보라고 주문하였다. 그 결과, 반복된 면담이 아닌 첫 면담에서조차 많은 아동들이 오류를 범하거나 거짓 진술에 순응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의 아동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세부 정보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 보자면 부정확한 진술을 제공한 3-6세 아동의 비율은 아동의 연령(3-4세 vs. 5-6세), 사건의 참여 여부(관찰 vs. 경험), 사건으로 유발된 정서(긍정적 vs. 부정적)에 따라 10%부터 50%에 이르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단 한 번의 면담으로 이러한 면담의 환경적 영향의 힘을 증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Garven, Wood, Malpass와 Shaw (1998)의 연구에서는 McMartin 사건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밝힌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면담의 전사 기록을 확인해본 후에 실제 사건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면담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시험하였다. McMartin 사건에서 면담자들은 아동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당 사건을 실제로 목격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전달하거나, 학대를 당했음을 수긍하는 결과가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와 반대로 이를 부인하는 결과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로 아동을 선택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처음 대답에서 학대를 당했음을 수긍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상상해보거나 짐작해보도록 요구 하였다.

따라서 Garven 등(1998)의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이 교실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읽어주고 특정 보상을 제공한 후 참여 아동들을 사회적 자극 조건 혹은 통제 조건 중 하나에 배정하여 일련의 암시적 질문을 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극 조건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질문할 때 McMartin 면담자가 사용한 것과 비슷한 암시적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제 조건에서 면담자는 동일한 암시성 질문을 사용하긴 했으나 상황적 압박은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극 조건에서는 절반 이상(58%)의 아동들이 거짓 진술을 제공한 반면, 통제 집단에서는 17%의 아동들만이 거짓 진술을 제공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조금 더 나이든 연령(5-7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Garven, Wood, & Malpass, 2000)에서는 면담자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낸 경우 아동에게 긍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식의 선택적 강화는 교실 방문에 대한 아동의 거짓 진술을 높인 반면, 공동 목격자 정보의 경우 아동의 진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Garven 등(2000)의 연구 결과들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먼저, 거짓 진술을 제공한 아동 중 대부분이 보름 후에 시행된 2차면담에서 보고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동은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에는 거짓 사건에 대해 자발적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제공한다는 점이다(Huffman, Crossman, & Ceci, 1997). 그 다음으로, Garven 등(2000)의 2번째 연구에서와 같이 아동의 응답에 따라서 면담자가 지지나 피드백을 달리 제공하는 행위는

면담자가 면담 내내 일관되게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이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전자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Davis & Bottoms, 2002; Goodman et al., 1991). 고로 면담자의 지지 그 자체만으로는 아동 기억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단, 면담자의 지지가 아동의 응답에 의존하는 경우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기억 역량을 평가할 때, 전문가들은 개인차와 연령, 면담 기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몇몇 아동들은 특정 면담이나 관찰법이 사용될 때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의 암시에 취약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아동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권위 있는 사람이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암시성 발언에 높은 저항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와 같은 가족적 요인은 기억 정확성에 대한 아동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arke-Stewart, Malloy, & Allhusen, 2004; Goodman & Melinder, 2007). 따라서 다양한 개인차 요인들과 관련된 복잡한 아동의 보고 정확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서 각각 따로 살펴 본 면담자의 태도적 특성과 라포 형성의 형태에 따라 아동의 오정보 기억 형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면담의 환경적 특성이 아동의 어떤 개인차 요인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수립된 본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질문과 사건을 다룬 기존 연구 결과(Goodman & Reed, 1986; Gordon, Baker-Ward, & Ornstein, 2001; Quas et al., 1999)에 따라 기억과 그 정확성에서 연령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령이 높은 아동일수록 답변의 정확성이 높고, 암시성 질문에도 효과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둘째, 외적 요인들, 특히 면담자의 지지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관련된 아동의 기억 중 오정보 반응, 즉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미취학 아동들은 취학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면담자의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개방형 형태에 의한 라포 형성의 긍정적인 효과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셋째, 다양한 아동의 개인차 특성은 아동 기억의 정확성과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력을 예측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예를 들어 주의집중과 행동에 대한 자발적이면서 고의적인 통제를 반영하는 기질적 차원을 의미하는 의도적 통제는(Rothbart, Ahadi, & Evans, 2000) 스트레스적 면담 상황에서 아동의 반응 및 기억 정확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강한 의도적 통제는 영아의 불쾌함·두려움·좌절의 감소 및 미취학 아동의 부정적 반응 강도의 감소와 같은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Rothbart et al., 2000). 그러나 지금까지 의도적 통제와 아

동 기억의 정확성은 심각한 현실 관련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한해 조사되었다(Salmon, Roncolato, & Gleitzman,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면담의 환경적 특성이 다른 조건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와 기억 정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강할수록 면담의 환경적 특성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그리고 본 연구팀의 다른 종단 연구들에 참여하여 연락처가 있는 아동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4-12세의 아동 총 138명을 모집하였다. 원활한 연구 절차 수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예: 아동의 정서적 상태나 주의력 부족 등에 의하여 기억면담이 제대로 끝맺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10명의 아동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 128명(남아 63명, 여아 65명)의 아동들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들을 연령에 따라서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4-7세 $\{n = 64, M(SD) = 77.29(13.58), \text{범위} = 48-92\text{개월}\}$, 8-11세 $\{n = 64, M(SD) = 114.40(15.55), \text{범위} = 96-140\text{개월}\}$. 각 그룹의 남아와 여아의 성별은 유사하도록 조정하였다.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면담자의 지지적인 태도가 아동 기억의 오류를 줄여준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구분하여 면담자 태도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찾기 쉽지 않다. 또한 어린 아동일수록 면담자의 태도 및 환경적 맥락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이승진, 박금주, 2013) 본 연구에서는 라포 형성의 종류와 면담자의 태도가 연령에 따라 아동의 오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골고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령 이외에 아동의 성별이나 형제 관계, 부모의 학력, 사회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별다른 제한은 두지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 참여자의 산출과 라포 형성의 형태는 Robert 연구진의(Robert et al., 2004)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연구 도구

기억 면담

기억 면담은 크게 라포 형성 단계, 개방형 자유 회상 단계, 강제 선택형 질문 단계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기억 면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 단계를 거쳐 면담자는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미국국립 아동 건강 및 인간발달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아동조사면담 기법에 근거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아동이 진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면담자가 만약 실수를 할 경우 바로잡아줄 수 있다고 말해주었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거나 답하기 애매한 경우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라포 형성 단계에서는 아동이 좋아하는 것, 혹은 가족 관계, 최근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은 특별한 사건 등에 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험 집단의 아동에게는 개방형 질문을, 통제 집단의 아동에게는 직접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라포 형성 단계 이후 본격적인 면담 단계에서 면담자는 두 조건의 아동들 모두에게 Roberts 등(2004)이 개발한 면담 절차에 따라 놀이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른 선생님과 옆방에서 무엇을 했는지,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가능한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래?’라는 물음으로 자유 회상 단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응답하고 나면 면담자는 아동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면담자는 이 과정에서 아동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면담자는 선택형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놀이 과정의 활동들이나 함께한 연구자의 인물, 환경적 정보, 신체 접촉 등의 범주로 나뉘고, 범주 당 5가지씩 놀이와 관련된 네/아니오 질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놀이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12가지의 암시성 질문을 제시하였다(예: 선생님이 목걸이를 걸어줬어?, 머리띠의 동물은 강아지였어, 아님 곰돌이였어?, 선생님이 얼굴을 만졌어?). 모든 문항이 끝나면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아동 개인차 측정 도구

아동 개인차 측정 도구로 아동 행동 설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가 보고하는 형식의 아동 기질 측정 도구이다. 부모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일반적인 반응에 관한 문장을 읽고 아동이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에 따라 표시한다. ‘해당 없음’ 칸도 있기 때문에 아동과 상관없는 문장일 경우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CBQ의 요인구조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각기 다른 지역의 표본 조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년 동안 시간적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thbart et al., 2000).

의도적 통제(자기 조절) 요인은 아동의 자발적이면서 의도적인 주의집중 및 행동 조절과 관련이 있다(Rothbart et al., 2000). 의도적 통제는 CBQ의 36개 항목 중 12개 항목에 해당하며,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계획을 세우거나 부적합한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 주의집중(attentional focusing; 과제에 주의를 집중하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 인지적 민감도(perceptual sensitivity; 외부 환경에서 오는 약한 강도의 자극을 감지하는 능력), 저강도 기쁨(low-intensity pleasure; 낮은 강도의 자극에서 오는 기쁨) 척도로 정의된다. 의도적 통제는 행동적 변인(예: 주의집중능력, 낮은 음성, 움직임 감소, 만족 지연, 부모 지시에 대한 반항 감소) 및 사회 정서적 변인(예: 화, 두려움, 기쁨, 규칙의 내면화와 같은 정서 조절)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변인들은 아동이 지배적인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적 반응을 억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을 자제하거나 변형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Kochanska et al., 2000).

그 외에 아동의 불안(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ielberger, 1972)이나 작업 기억 능력(Digit Span; McCarthy, 1972)도 측정하였다. 작업 기억은 숫자 외우기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이후 공분산 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3. 연구 절차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진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고려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충분히 연구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만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참여 아동은 한 명의 실험자와 일련의 놀이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된 놀이(예: 과학 실험)는 아동이 또래 아동들과의 놀이 상황에서 빈번히 경험하게 되는 활동들과 그렇지 않은 활동들이 포함된 ‘가장 놀이(pretending play)’로 놀이 과정에서 실험 진행자와 참여 아동 사이에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구 절차 전반에 걸쳐 어떠한 과정에서도 아동에게 심리적 혹은 신체적 고통, 긴장, 불안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절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구 절차를 간략하게 기술해 보면, 각 아동은 ‘놀이방’으로 안내되었고, 검은색 앞치마를 입은 실험자는 미리 짜인 대본에 따라 일련의 과학실험을 포함한 놀이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구성 요소는 부록 1과 2에 제시하였다. 놀이가 끝난 후 아동은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다. 또 다른 실험자, 즉 면담자는 아동이 속한 집단에 해당되는 상이한 라

포 형성 형태 및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면담 프로토콜을 실시하였다. 이 면담은 한 명의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실제 면담의 경험이 풍부한 남성전문가가 담당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꾸며진 사건 당일의 놀이 상황 15분과 면담 시간(평균 15분)으로 전체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김연수와 박금주(2013)의 연구에서 번안되어 사용된 ‘아동행동설문지(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Putnam & Rothbart, 2006)’ 축약형에 의해 평가된 아동의 기질에 관한 개별 피드백을 연구 참여에 대한 수료증과 함께 각 가정에 우편으로 제공하였다. 참여 아동의 연령과 주요 실험 처치에 따른 각 그룹의 피험자 수는 표 1과 같다.

면담자의 태도

선행 연구들에 따라 면담 양식을 크게 지지적(supportive), 비지지적(unsupportive), 중립적(neutral)으로, 총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Almerigogna, Ost, Bull, & Akehurst, 2007). 지지적 양식의 면담에서 면담자는 밝은 색의 캐주얼한 복장을 착용한 상태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아동에게 자주 웃어 주고 아동과 자주 눈을 맞추며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와 말투로 아동과 대화하였다. 또한 아동이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나 지나치게 세련된 표현은 자제하였으며 자주 아동의 이름을 부르고, 편안하고 개방된 자세로 아동과 가까운 거리에 앉아 아동을 향해 상체를 숙인채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대답에 대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보여주었고, 아동과의 공통점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아동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였

표 1. 연령과 라포 형성 형태 및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피험자 수

연령	조건	아동 수(N)	합계(N)
미취학 아동 (4-7세)	개방형 라포 / 지지적 면담	11	64
	개방형 라포 / 중립적 면담	10	
	개방형 라포 / 비지지적 면담	11	
	직접형 라포 / 지지적 면담	11	
	직접형 라포 / 중립적 면담	10	
	직접형 라포 / 비지지적 면담	11	
취학 아동 (8-12세)	개방형 라포 / 지지적 면담	10	64
	개방형 라포 / 중립적 면담	10	
	개방형 라포 / 비지지적 면담	11	
	직접형 라포 / 지지적 면담	10	
	직접형 라포 / 중립적 면담	11	
	직접형 라포 / 비지지적 면담	12	
합계		128	128

다. 반면 비지지적 양식의 면담에서 면담자는 지지적 태도와 반대되는 양상의 태도 및 행동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면담자는 검은색 정장을 착용하였고 웃지 않았으며, 아동과 눈을 맞추지 않는 대신 면담 기록지만을 응시하였고 딱딱한 단음으로 대화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자세 혹은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등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아동의 말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거리고 되도록 아동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적 양식의 면담자는 면담 전 반적으로 최대한 중립적인 표정과 말투, 자세 및 태도를 유지하였다. 복장은 무채색의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였고 아동의 말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구나’ 등 간단한 방식으로 대답하였지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면담이 종결된 후 또 다른 실험자가 라포 형성 유무와 정도에 대해서 아동에게 물어봄으로써 실제 아동이 느낀 라포를 측정하였다. 이 때 면담을 실시한 면담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가능한 정직하게 응답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부터 5점까지이며, 1점은 ‘매우 불편하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편하다’로, 총 5점 척도로 계산되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동의 경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을 고려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그림과 숫자가 쓰여 있는 양식을 보여주어 자신이 느끼는 편안함 정도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을 시행한 면담자 역시 면담 후에 면담 동안의 아동 반응과 망설임 정도, 적극성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라포 형성 형태의 조작은 선행 연구(이승진, 광금주, 2014)의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면담자 태도의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보고를 평가해 본 결과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지지적 면담 집단의 아동들이 면담자에 대한 호감도를 비지지적 면담 혹은 중립적 면담 집단의 아동들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집단에 따른 처치가 아동에게 적절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SD) = 4.5(.10), 3.5(.10), 1.5(.10), F(2, 125) = 259.87, p < .001\}$.

라포 형성 형태

라포는 실제 상담이나 수사 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공감과 신뢰 등을 바탕으로 피면담자가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일컫는다(김시엽, 문옥영, 김기민,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라포 형성의 방식을 Robert 등(2004)에서 사용된 방식과 동일하게 실험 집단에 따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과 직접형 질문(close ended questions)으로 나누어 사용되었다. Robert 등(2004)에 의하면 라포 형성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개인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들(학교, 가족, 친구,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서 서술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면담자는 아동에게 최근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예: 가족과 함께 놀이동산 갔던 일)에 대해 회상하고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도록 한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정교하게 서술하는 것을 연

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 두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의 질문은 실험 집단의 아동에게는 개방형(예: 지난 생일에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나는 것을 모두 말해볼래?)으로, 통제 집단의 아동에게는 직접형(예: 지난 생일에 엄마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었지?)의 형태로 제공된다.

4. 코딩

이승진과 광금주(2014) 기억 면담 코딩 방식과 유사하게 면담 과정의 전 단계를 전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유 회상 단계, 강제 선택형 질문 단계 동안 면담자의 질문에 따른 아동 응답의 정확성, 즉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반응 수만을 계량화 하였다. 이 방식은 Yuille와 Cutshall(1986, 1989)이 최초로 개발하고 Lamb, Hershkowitz, Sternberg, Boat와 Everson(1996)이 정교화한 방식으로, 아동의 회상 보고에서 정확하게 보고된 항목들의 수를 계산하는 보편화된 방식이다. 회상된 정보의 수는 가장 처음 언급되면서 그 응답이 정확한 경우에만 계산에 포함하였고 아동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계산하지 않았다. 아동이 정확하게 응답한 항목 중에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예: 과학 실험 놀이에서 경험한 것 중 기억나는 거 모두 말해 볼래?)에 의해 얻어진 항목들은 ‘자유회상(open-ended recall: OE)’ 반응으로 코딩하였다. 한편, 놀이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강제 선택형 질문 즉,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에 아동이 ‘네’라고

잘못 응답한 경우 ‘오정보(false alarm)’로 코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점수는 각 질문 유형에 대한 아동의 응답 수의 합을 해당 질문 유형의 전체 질문 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아동의 자유 회상 점수가 .10이라면 아동이 개방형 질문 총 10문항 중 1문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또한 오정보 값이 .10이라면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유도성 질문 총 10문항 중 1문항에서 아동이 ‘네’라고 잘못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동의 기억 면담 자료에서 자유회상과 오반응의 수는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두 명의 연구자가 코딩을 진행한 후에 평정자 간의 내적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 간의 일치도는 자유 회상 .95, 오정보 .98로 평정자 간의 내적 타당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참여 아동의 연령, 성별, 부모 관계 등에 해당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검토하였고, 라포 형성의 종류(개방형 vs. 직접형)와 면담자의 태도(지지적 vs 중립적 vs 비지지적)가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질, 불안, 작업 기억 등과 같은 아동 개인차에 따른 라포 형성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적 특성이 아동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 분석과

변량 분석도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이 실험 처치나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2 (아동 성별: 남아, 여아) $\times$ 2 (라포 형성 형태: 개방적, 직접적) $\times$ 3 (면담자 태도: 지지적, 중립적, 비지지적)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기억 정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교육 정도나 사회계층에 따른 아동 기억의 정확성 역시도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p > .05$). 따라서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은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모든 분석에서는 기초적인 아동의 정보처리 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숫자 외우기 점수를 통제 변수로 두고, 라포 형성 형태(개방적, 직접적)와 면담자의 태도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을 관찰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기본적으로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와 태도에 따른 연령별 아동 기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아동의 연령, 라포 형성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각 독립 변수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회상(free recall: FR), $F(2, 116) = .54$, 오정보 반응(false alarm: FA), $F(2, 116) = .24$, $p > .05$ }.

아동 기억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를 살펴본

표 2. 라포형성 형태 및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여부에 따른 아동 기억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자유회상(free recall)		오정보(false alarm)	
		라포 형성 형태			
		개방형	직접형	개방형	직접형
연령	면담자의 태도	<i>M(SD)</i>		<i>M(SD)</i>	
4-7세	지지적 면담	.48(.04)	.26(.03)	.07(.03)	.09(.10)
	중립적 면담	.29(.02)	.16(.02)	.10(.04)	.14(.04)
	비지지적 면담	.24(.02)	.10(.06)	.15(.10)	.20(.15)
	합계	.34(.11)	.17(.08)	.11(.07)	.14(.20)
8-12세	지지적 면담	.71(.08)	.46(.03)	.00(.00)	.04(.04)
	중립적 면담	.56(.07)	.37(.08)	.04(.03)	.08(.02)
	비지지적 면담	.47(.06)	.31(.10)	.10(.07)	.13(.05)
	합계	.58(.12)	.38(.12)	.05(.06)	.09(.05)
총합	지지적 면담	.59(.14)	.36(.11)	.04(.04)	.07(.04)
	중립적 면담	.43(.15)	.27(.11)	.07(.05)	.11(.05)
	비지지적 면담	.36(.13)	.21(.12)	.13(.09)	.17(.11)
	합계	.46(.17)	.28(.12)	.08(.07)	.10(.08)

결과, 취학 아동들이 미취학 아동들에 비해 자발적인 회상(free recall: FR)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2세: $M(SD) = .47(.14)$, 4-7세: $.26(.13)$, $R(1, 126) = 87.18$, $p < .05$ }. 한편,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즉 오정보 반응(false alarm: FA)은 미취학 아동들이 취학 아동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8-12세: $M(SD) = .07(.06)$, 4-7세: $.13(.09)$, $R(1, 126) = 18.46$, $p < .05$ }.
또한 아동 기억에 대한 면담자 태도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받은 지지적 조건 아동들의 자유회상이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인 중립적 조건과 비지지적 조건 아동들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SD) = .47(.17)$, $.35(.15)$, $.28(.14)$, $R(2, 125) = 17.24$, $p < .001$ }. 또한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즉 오정보 반응(false alarm: FA) 역시도 면담자의 지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인 중립적 조건과 비지지적 조건보다 지지적 조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M(SD) = .05(.04)$, $.09(.05)$, $.15(.10)$, $R(2, 125) = 15.48$, $p < .001$ }.

이승진과 박금주(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아동 기억에 대한 라포 형성 형태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 아동들의 자유회상(free recall: FR)이 직접적 라포 형성 조건 아동들의 자유회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M(SD) = .46(.17)$, $.28(.12)$, $R(1,$

126) = 47.61, $p < .001$). 한편 직접형 라포 형성 조건 아동들이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에 비해 오정보 반응을 많이 제공하였다 [$M(SD) = .08(.07), .12(.08), F(1, 126) = 7.07, p < .01$]. 이는 직접적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보다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보고를 제공하고, 오정보가 포함된 면담자의 질문에 보다 강력하게 저항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보다 암시적 문항수가 더 많이 포함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달리 라포 형성의 형태와 암시적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false alarm)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라포 형성의 형태 차이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오정보에 대한 아동의 저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변량 분석 결과 미취학과 취학 아동 두 연령의 그룹에서 모두 동일한 형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아동들에게 라포 형성의 형태와 면담자 태도의 영향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면담자의 라포 형성에 대한 반응은 각 아동들마다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차 변인들과 아동 기억 특성 간의 관계성을 탐구해 보는 상관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개인차 요인들 중에서도 기질적 요인 중 불쾌함, 두려움, 좌절의 감소 및 아동의 부정적 반응 강도의 감소에 해당하는 정서 조절을 일컫는 ‘의도적 통제’의 점수와 아동의 오정보 반응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8, p <$

.001).

특히 범죄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 면담 시 아동이 면담자가 제공하는 오정보에 순응함으로써 발생하는 잘못된 판단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과 잘못된 정보에 순응하는 정도, 즉 오정보에 대한 저항력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선 유의한 상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기질적 요인 중 의도적 통제에 대한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5.00, $M(SD) = 4.67(1.69)$, range: 1-7} 실험 참여 아동 중 의도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의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오정보 반응에 있어 아동의 기질적 요인 중 의도적 통제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상관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게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일수록 오정보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의 기질적 요인 중 의도적 통제에 따라 라포 형성의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가 아동 기억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자의 태도와 라포형성 형태 변인을 포함한 3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상호 작용이 나타났다 [$F(2, 116) = 7.89, p < .05$]. 이를 직접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나누어진 자료를 라포 형성의 형태와 면담자 태도의 이원 분산 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들에게는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의 2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

하였으나, $\{F(2, 58) = 21.24, p < .05\}$, 의도적 통제가 높은 아동들에게는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2, 58) = 5.63, p > .05\}$. 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라포 형성 형태와 상관없이 면담자의 지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오정보 반응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만 개방형 라포 형성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 하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의 효과

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오정보 반응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라포 형성 형태와 면담자의 지지와 같은 면담의 구성적 특성이 아동의 오정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면담자와 아동의 라포 형성이 적절하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 인출이나 보고와 같은 아동의 기억 정확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로 인한 의미 있는 발견은 연령과 무관하게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특히 아동의 오정보 반응

표 3. 면담자의 라포형성 형태, 면담자 태도와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른 오정보의 평균 및 표준편차

라포형성 형태	면담자의 지지 여부	오정보(false alarm)	
		의도적 통제 높은 아동	의도적 통제 낮은 아동
		(<i>n</i> = 64)	(<i>n</i> = 64)
개방형	지지적 면담	.02(.03)	.10(.00)
	중립적 면담	.02(.03)	.11(.03)
	비지지적 면담	.04(.02)	.17(.07)
	합계	.03(.03)	.14(.06)
직접형	지지적 면담	.04(.05)	.09(.02)
	중립적 면담	.06(.04)	.14(.05)
	비지지적 면담	.09(.03)	.19(.10)
	합계	.07(.04)	.16(.09)
총합	지지적 면담	.03(.05)	.09(.01)
	중립적 면담	.04(.03)	.13(.04)
	비지지적 면담	.07(.03)	.18(.09)
	합계	.04(.08)	.15(.08)

을 최소화해야 하는 피해 아동 수사 면담시에, 평소 주의집중과 행동에 대한 자발적이면서 의도적인 통제가 다소 어려운 아동들을 면담하는 경우 아동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면담자가 사회적지지 제공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라포형성 형태, 면담자의 지지 여부와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른 오정보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 피해 아동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로운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수도권에 거주중인 만 4-12세 아동 128명을 대상으로 라포 형성의 형태와 면담자의 태도 특성에 따라 무선 할당하였다. 그리고 작업 기억 역량을 통제하여 기초적인 아동의 정보처리 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연령, 개방형 또는 직접형의 라포 형성의 형태, 그리고 지지적, 중립적, 비지지적인 면담자의 태도에 따른 아동 기억 회상 보고의 정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의 특성은 아동의 기억 정확성과 암시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면담의 특성 요소를 긍정적이고 지지적 면담 태도 혹은 차갑고 위협적 면담 태도 두 가지로 조작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Bottoms, Quas, & Davis, 2007) 본 연구는 중립적 면담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지지적인 배경이 모든 경우에 정보의 양을 증

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아동의 암시성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et al., 1996; Davis & Bottoms, 2002; Goodman et al., 1991). 본 연구도 유사하게 지지적인 배경에서 아동의 기억이 보다 향상되고 암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자의 지지는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이 답변하기 전 면담자의 질문에 보다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끈다(Quas, Bauer, & Boyce, 2004). 또한 아동은 차갑거나 잠재적으로 위협한 성인보다 따뜻한 성인이 암시적 발언을 제공할 때 보다 편안하게 면담자의 암시에 대한 부정성을 표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저항 효능(resistance efficacy)으로 알려져 있다(Davis & Bottoms, 2002). 면담자의 지지는 아동이 암시에 저항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동이 선택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련 연구로 Lowenstein, Blank와 Sauer(2010)는 9-10세 아동이 가짜 범죄 상황의 가해자를 식별하는 능력을 조사하였다. 실험 관리자는 제복을 입고 있거나 혹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사복 조건의 아동들과 비교하여 제복 조건의 아동들은 대상 부재 배열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하였으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표현하였고 더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제복이 비지지적인 배경과 높은 암시성 등을 조성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높은 지원성은 오류를 줄여준다고 보고하였지만,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을 구분하여 면담자 지지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또한 면담자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복종(Ceci, &

Bruck, 1995)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면담자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효과는 미취학 아동에게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 기억에 면담의 환경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령에 따른 발달차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도적 통제가 높은 아동들은 기억의 정확성에 면담의 환경적 특성이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의도적 통제가 강한 아동은 의도적 통제가 약한 아동에 비해 위협, 불안, 긴장과 같은 정서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것에 능숙하다는 Derryberry와 Rothbart(1997)의 제안과 맥을 같이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대처 반응에 대한 이론들은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의도적인 주의력 관리(주의 이동과 집중, 주의 분산)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Eisenberg, Fabes, Guthrie, & Reiser, 2000). 이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의 경우 라포 형성 형태와 상관없이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오정보 반응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방형 라포 형성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면담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만 개방형 라포 형성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아동의 오정보 반응을 최소화해야 하는 진술 조사 맥락에서 평소 주의 집중과 행동에 대한 자발적이면서 의도적인 통제가 다소 어려운 아동들을 면담하는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면담자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승진과 곽금주(2014)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 참여 아동들은 실제 범죄를 당한 피해 아동들의 보편적인 심리 상태와 달리 면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원활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라포 형성의 형태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기억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들이 아동들로 하여금 회상하기 힘든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실험 등 평범한 놀이 활동에 해당되는 일상적 경험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라포 형성의 형태가 아동 기억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측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범죄사건을 겪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진술 수사면담의 경우에도 라포 형성의 형태가 면담자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면담자의 태도 변인을 조작함에 있어, 실험 처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면담자가 착용하는 옷의 색상을 달리한 결과 면담자 태도의 효과에 면담자 옷의 색상이라는 또 다른 변인의 효과까지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더 주의를 기울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험 연구이다 보니 아동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면담을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뒤따르다보니 아동 보고의 양에 제한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우 작은 평균의 차이를 기반으로 일반화하게 되

는 한계도 분명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적 처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아동의 의도적 통제 수준의 중앙치 점수를 중심으로 집단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도적 통제 수준의 높고 낮은 집단의 구분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의 주요 가치는 라포 형성의 형태가 아동의 내적 특성 중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즉,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개방형 라포 형성 조건에 비해 폐쇄형 라포 형성 조건에서 면담자가 제공하는 암시적 정보에 대한 순응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라포 형성 형태에 따라 오정보의 반응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라포 형성의 형태는 아동의 연령이나 인지적 특성보다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 특히 행동적 변인(예: 주의집중능력, 낮은 음성, 움직임 감소, 만족 지연, 부모 지시에 대한 반항 감소) 및 사회 정서적 변인(예: 화, 두려움, 기쁨, 규칙의 내면화와 같은 정서 조절)에 해당되는 의도적 통제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에 비해 라포 형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원활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라포 형성이 아동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으로 하여금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

상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면담의 환경적 특성과 아동의 개인차 요인들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과 무관하게 개방형 라포 형성과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정확성과 암시적 정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본격적인 수사 면담 전 면담자의 라포 형성 방식과 면담자 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의도적 통제 수준 따라 면담자의 라포 형성 특성이 갖는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범죄사건마다 특성도 상이하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아동들마다 그 특성도 다양하기에 수사 면담의 환경적 특성과 피해 아동들의 내적인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차별화된 수사면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아동성범죄와 같이 피해아동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사건의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아동의 권익신장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수사면담을 통해 얻은 높은 정확성이 담보된 아동의 진술은 그 증명력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특성들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차 특성에 따른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면담자의 자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연구들은 아동 진술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비롯한 법조계 전문가들 및 일선 기관의 실무진들에게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이승진 (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3-40.
- 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업 (2004). 인지면담기법이 아동과 성인의 사건회상 정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37-151.
- 김시업, 문옥영, 김기민 (2010). 수사 면담시 라포가 진술의 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49-166.
- 김연수, 곽금주 (2013).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인간발달연구*, 20(1), 29-49.
- 김태경, 이영호 (2010).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301-325.
- 이승진, 곽금주 (2013).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4), 59-80.
- 이승진, 곽금주 (2014). 면담자의 라포 형성 형태, 소요 시간 및 아동의 평소 불안 수준이 사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1(2), 133-157.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04-47, 11-113.
- Almerigogna, J., Ost, J., Akehurst, L., & Fluck, M. (2008). How interviewers' nonverbal behaviors can affect children's perceptions and suggest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00(1), 17-39.
- Almerigogna, J., Ost, J., Bull, R., & Akehurst, L. (2007). A state of high anxiety: How non supportive interviewers can increase the suggestibility of child witnesse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7), 963-974.
- Bottoms, B. L., Quas, J. A., & Davis, S. L. (2007). The influence of interviewer-provide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ggestibility, memory and disclosures. In M-E Pipe, M. E. Lamb, Y. Orbach, & A. Cederbord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135-157). Mahwah, NJ: Erlbaum.
- Bruck, M., & Ceci, S. J. (2004). Forensic developmental psychology: unveiling four scientific misconcep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y*, 13, 229-232.
- Bruck, M., Ceci, S. J., & Hembrooke, H. (2002). The nature of children's true and false narratives. *Developmental Review*, 22(3), 520-554.
- Burleson, B. R., Albrecht, T. L., Goldsmith, D. J., & Sarason, I. G. (1994). The communication of social support. In B. R. Burleson, T. L. Albrecht, & I. G. Sarason (Eds.), *Communicating social support: Messages,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community* (pp. xi-xxx). Thousand Oaks: Sage.

- Carter, C. A., Bottoms, B. L., & Levine, M. (1996). Linguistic and socioemotional influences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0, 335-358.
- Ceci, S. J., & Bruck, M. (1995). Jeopardy in the courtroom: A scientific analysis of children's testimon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eci, S. J., Huffman, M. L. C., Smith, E., & Loftus, E. F. (1994). Repeatedly thinking about a non-event: Source misattributions among preschoolers. *Consciousness & Cognition: An International Journal*, 3, 388-407.
- Clarke-Stewart, K. A., Malloy, L. C., & Allhusen, V. D. (2004). Verbal ability, self-control, and clos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rotect children against misleading suggest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1037-1058.
- Davis, S. L., & Bottoms, B. L. (200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 test of the underlying mechanism. *Law and Human Behavior*, 26(2), 185-215.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633-652.
- Eisenberg, N. A., Fabes, R. A., Guthrie, I. K., & Reiser, M. (2000). Dispositional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heir role in predicting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36-157.
- Engelberg, E., & Christianson, S. Å. (2002). Stress, trauma, and memory. In M. L. Eisen, J. A. Quas, & G. S. Goodman, (Ed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the forensic interview* (pp.143-163). Mahwah, N.J.: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Fisher, R. P., & Geiselman, R. E. (1992). Memory enhancing techniques for investigative interviewing: The cognitive interview.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Garven, S., Wood, J. M., & Malpass, R. S. (2000). Allegations of wrongdoing: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on children's mundane and fantastic claim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38-49.
- Garven, S., Wood, J. M., Malpass, R. S., & Shaw, J. S. (1998). More than suggestion: The effects of interviewing techniques from the McMartin preschool ca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347-359.
- Geddie, L., Fradin, S., & Beer, J. (2000). Child characteristics which impact accuracy of recall and suggestibility in preschoolers: Is age the best predictor?. *Child Abuse & Neglect*, 24(2), 223-235.
- Giles, J. W., Gopnik, A., & Heyman, G. D. (2002). Source monitoring reduces the suggestibility of pre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Science*, 13(3), 288-291.
- Goodman, G. S., & Melinder, A. (2007). Child witness research and forensic interviews of young children.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2, 1-19. (Reprinted in V. V. L. Gayathri (Ed.), *Child witness: Legal issues*. India: AMICUS Books].

- Goodman, G. S., & Reed, R. S. (1986). Age differences in eyewitness testimony. *Law and Human Behavior, 10*, 317-332.
- Goodman, G. S., Bottoms, B. L., Schwartz-Kenney, B. M., & Rudy, L. (1991). Children's testimony about a stressful event: Improving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arrative and Life History, 1*, 69-99.
- Gordon, B. N., Baker-Ward, L., & Ornstein, P. A. (2001). Children's testimony: A review of research on memory for past experience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 157-181.
- Greenstock, J., & Pipe, M. E. (1997). Are two heads better than one? Peer support and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6), 461-483.
- Gudjonsson, G. H. (1984). A new scale of interrogative suggesti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03-314.
- Gudjonsson, G. H. (1987). A parallel form of the Gudjonsson Suggestibility Scal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215-221.
- Gudjonsson, G. H. (2003). The psychology of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A handbook*. West Sussex: John Wiley & Sons.
- Home Office (2002). Achieving best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Guidance for vulnerable or intimidated witnesses, including children. London: Home Office Communication Directorate.
- Huffman, M. L. C., Crossman, A. M., & Ceci, S. J. (1997). "Are false memories permanent?": An investigation of the long-term effects of source misattribu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6*, 482-490.
- Kanaya, T., Ceci, S. J., & Scullin, M. H. (2002). The rise and fall of IQ in special ed: Historical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6), 453-465.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Krähenbühl, S., & Blades, M. (2006). The effect of interviewing techniques on young children's responses to question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2*(3), 321-331.
- Lamb, M. E., Hershkowitz, I., Sternberg, K. J., Boat, B., & Everson, M. D. (1996). Investigative interviews of alleged sexual abuse victims with and without anatomical dolls. *Child Abuse & Neglect, 20*(12), 1251- 1259.
- Lamb, M. E., Sternberg, K. J., & Esplin, P. W. (1998). Conducting investigative interviews of alleged sexual abuse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22*(8), 813-823.
- Lowenstein, J. A., Blank, H., & Sauer, J. D. (2010). Uniforms affect the accuracy of children's eyewitness identification decisions. *Intelligence, 39*(1), 59-73.
- McCarthy, D. (1972). *McCarthy scales of children's abilities*. Psychological Corporation.
- Melinder, A., Endestad, T., & Magnussen, S. (2006). Relations between episodic memory,

- suggestibility, theory of mind, and cognitive inhibition in the preschool child.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7, 485-495.
- Melinder, A., Scullin, M. H., Gunnerød, V., & Nyborg, E. (2005). Generalizability of a 2-factor measure of young children's suggestibility in Norway and the USA. *Psychology, Crime, & Law*, 11, 123-145.
- Orbach, Y., & Lamb, M. E. (2000). Enhancing children's narratives in investigative interviews. *Child Abuse and Neglect*, 24, 1631- 1648.
- Poole, D. A. & Lamb, M. E. (1998).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ren: a guide for helping professional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 113.
- Quas, J. A., & Lench, H. C. (2007). Arousal at encoding, arousal at retrieval, interviewer support, and children's memory for a mild stresso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 289-305.
- Quas, J. A., & Schaaf, J. M. (2002). Children's memories of experienced and nonexperienced events following repeated interview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3(4), 304- 338.
- Quas, J. A., Bauer, A. B., & Boyce, W. T. B. (2004). Physiological reactivity, social support, and memory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5, 797-81.
- Quas, J. A., Goodman, G. S., Bidrose, S., Pipe, M. E., Craw, S., & Ablin, D. (1999). Emotion and memory: Children's long-term remembering, forgetting, and suggestibil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2, 235-270.
- Quas, J. A., Qin, J., Schaaf, J. M., & Goodman, G. S. (1997).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and adults' suggestibility and false event memor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359-390.
- Roberts, K. P., & Blades, M. (1999). Children's memory and source monitoring of real-life and televised ev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75-596.
- Roberts, K. P., Lamb, M. E., & Sternberg, K. J. (2004). The effects of rapport-building style on children's reports of a staged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189-202.
- Roebers, C. M., Schwarz, S., & Neumann, R. (2005). Social influence and children's event recall and suggestibility.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7-69.
- Rothbart, M. K., Ahadi, S. A., &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22-135.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3-7 years.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 Salmon, K., Roncolato, W., & Gleitzman, M. (2003). Children's reports of emotionally laden events: Adapting the interview to the child.

-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1), 65-79.
- Saywitz, K. J., Goodman, G. S., Nicholas, E., & Moan, S. F. (1991). Children's memories of a physical examination involving genital touch: Implications for report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82-691.
- Schaaf, J. M., Goodman, G. S., & Alexander, K. (1999). *Effects of repeated questions on children's memory and suggestibility about true and false event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Albuquerque, NM.
- Schachar, R. J., & Logan, G. D. (1990). Impulsivity and inhibitory control in normal development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0-720.
- Siegmán, A. W., & Reynolds, M. (1984). The Facilitating Effects of Interviewer Rapport and the Paralinguistics of Intimate Commun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 71-88.
- Sondhi, V., & Gupta, A. (2005). The role of interviewer behavior in eyewitness suggestibility. *The Journal of Credibility Assessment and Witness Psychology*, 6(1), 1-19.
- Spielberger, C. D. (1972).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cal Press.
- Sternberg, K. J., Lamb, M. E., Hershkowitz, I., Yudilevitch, L., Orbach, Y., Esplin, P. W., & Hovav, M. (1997). Effects of introductory style on children's abilities to describe experiences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1, 1133-1146.
- Stockdale, M. P. S. (Ed.). (1996).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Perspectives, frontiers, and response strategies. Women and work: A research and policy series*, 5. London: Sage Publications.
- Thompson, W. C., Clarke-Stewart, K. A., & Lepore, S. J. (1997). What did the janitor do? Suggestive interviewing and the accuracy of children's accounts. *Law and Human Behavior*, 21, 405-426.
- Tobey, A. E., & Goodman, G. S. (1992). Children's eyewitness memory: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forensic context. *Child Abuse & Neglect*, 16(6), 779-796.
- Warren, A. R., Woodall, C. E., Hunt, J. S., & Perry, N. W. (1996). "It sounds good in theory, but...": Do investigative interviewers follow guidelines based on memory research?. *Child Maltreatment*, 1, 231-245.
- Yuille, J. C., & Cutshall, J. (1989). Analysis of the statements of victims, witnesses and suspects. In J. C. Yuille (Ed.), *Credibility assessment* (pp.175-191). Springer Netherlands.
- Yuille, J. C., & Cutshall, J. L. (1986). A case study of eyewitness memory of a crim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2), 291-301.

1 차원고접수 : 2015.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5.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3. 03.

The Effects of Interview's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Effortful Control: The Accuracy of Children's Recollection

Kwak, Keumjoo

Kim, Yeonsoo

Lee, Seungj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interviewer's social support and questioning style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recollection during rapport-building sessions. 128 children aged four to twelve interacted with a researcher and interviewed with another researcher during a science experiment event. Overall, the results suggested that more accurate information in the child's voluntary responses was associated with open-style rapport-building and interviewer's social support, regardless of the children's ages. Interestingly, the accuracy of children's false memory differed as a fun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temperament. Specifically, in a closed rapport-building condition, children evaluated comparatively lower on effortful control dimension than children evaluated as higher on the dimension recalled information with more errors. Ultimately, this study identified a number of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how children report an experience. The findings are especially marked for children with lower effortful control and who are in special need of support and for those with an open style rapport-building where the interviewer's sincere support might be more important.

Keywords: rapport-building style, interviewer's social support, effortful control, suggestibility, children's testimony

부록 1. 놀이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요소

● 놀이: 사진 찍고 다섯 가지의 과학 실험하기

실험협조자는 15분 분량으로 미리 짜인 대본에 따라 아동과 놀이를 진행한다. 먼저 검은색 앞치마(feature1)를 입은 실험협조자는 아동에게 악수를 청한다(action1). 먼저, 실험협조자는 아동이 팔찌, 머리띠를 착용하는 것을 도와준다. 머리띠(feature2)를 씌우기 전에 아동의 머리를 매만져준다(action2). 팔찌를 채우기 전에 손가락으로 아동의 손목 둘레를 잰 후(action3), 팔찌(feature3)를 채워준다. 팔찌를 차고 나면 실험협조자는 은색 사진기(feature4)를 이용하여 아동의 사진을 찍어준다. 첫 번째 사진을 찍기 전에 아동의 어깨를 두드리면서(action4) 의자(feature5)에 앉으라고 말한다. 두 번째 사진을 찍기 전에 아동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action5) 서서 포즈를 취하라고 한다. 그 후 실험협조자는 아동이 머리띠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action6) 아동에게 파란색 앞치마(feature6)를 입히고 뒤에서 끈을 묶어준다(action7). 그 후 실험협조자는 아동과 다섯 가지 과학 실험을 진행한다(세부적인 진행과정은 부록2 참조). 과학 실험 내용은 (1) 종이비행기(feature7) 접기(action8), (2) 자석 핀(feature8) 만들기(action9), (3) 고무공(feature9)을 책상(feature10)과 담요(feature11) 위에 튕기기(action10), (4) 휴지(feature12)를 이용하여 물 위에 클립 띄우기(action11), (5) 볼록렌즈(feature13)로 그림보기(action12)로 진행한다. 실험 순서는 순서 효과 방지를 위해 상쇄시킨다. 모든 실험이 끝나면 실험협조자는 참여에 대해 칭찬하며 아동의 어깨를 톡톡 치고(action13), 아동의 팔에 찬 팔찌를 제거해준다(action14).

부록 2. 과학실험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요소

- (1) [종이접기] 아동에게 비행기 접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주며 같이 비행기를 접음.
- (2) [자석] 아동에게 핀이 서로 붙을지 안 붙을지 물어본 후 핀들끼리 서로 붙여봄. 핀들이 서로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자석에 핀을 문지른 다음에 다른 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핀을 붙여봄.
- (3) [공] 공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책상 위에 그리고 책상 위에 담요를 펼치고 공을 튕김. 책상 위에 서는 공이 잘 튀기나 담요위에서는 폭신폭신했다 공이 잘 튀기지 않는 것을 확인함.
- (4) [클립] 아동에게 물이 담긴 통에 클립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물어본 후 클립을 떨어뜨림. 이어 아동에게 가라앉은 클립을 물 위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본 후 휴지 한 장을 물 위에 깔고 클립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클립을 물 위에 띄움.
- (5) [렌즈] 종이 위에서 돋보기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그림(별, 세모, 번개모양)들을 찾음. 돋보기를 통해 그림들이 크게 보인 것을 확인함.